

육당 최남선의 와카(和歌) 번역 연구

박 상 현*

(e-mail: koreaswiss@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
 3. 와카 번역 양상에 나타난 반일 민족주의
 4. 맺음말
-

1. 머리말

육당 최남선은 자신이 세운 출판사인 신문관(新文館)에서 1916년 1월에는 『시문독본(時文讀本)』 초판을, 1918년 4월에는 개정판인 정정판(訂正版)을 출간했다. 전자는 1책 제1~2권으로, 후자는 1책 제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¹⁾ 그리고 1922년에는 제1권~4권을 합한 『시문독본 정정합편(時文讀本 訂正合編)』을 세상에 내놓는다. 서명에 보이는 ‘시문’이란 보통 당대의 글을, ‘독본’이란 일반인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입문서 혹은 해설서를 의미한다. 결국 『시문독본』이란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둔 근대적 문범(文範)을 모은 최초의 독본²⁾이며, 민간 교과서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³⁾

*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

1) 1, 2권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3, 4권은 중학교 수준에 해당했다고 한다.

최남선 편, 구자황·문혜윤 공편(2009) 『근대문학독본1:시문독본』 경진문화. 245쪽

2) 위의 책. 236쪽

3)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나온 민간 교과서적인 독본으로는 1928에 출간된 새벗사(社)의 『어린이독본』(회동서관)과 1932년에 나온 이윤재의 『문예독본』(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 등이 있다.

임상석은 『시문독본』에 대해 신문관으로 대표되는 신문화 운동과 조선광문회로 대표되는 고전 운동이 합류한 출판물이었다고, 또한 한문 고전과 근대 분과 학문 그리고 자국 전통의 세 가지가 혼재된 것으로 내용과 문체에서 획기적인 독본이었다고 말한다.⁴⁾ 그리고 이것은 1923년까지 7권을 거듭하며 당시의 독본 가운데 가장 많은 출판 실적을 올렸고, 현진건⁵⁾과 이태준⁶⁾ 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1918년 4월에 개정된 『시문독본』의 제3권 제29장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다. ‘전체적인 내용에 민족주의도 적지 않게 드러난’⁷⁾다는 『시문독본』에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⁸⁾의 글이 조선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기 때문이다. 「知己難」이 그것이다. 일본어로 ‘ちきなん’, 우리식 한자음으로는 ‘지기난’으로 읽는다. 여기서 ‘지기’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 곧 절친한 친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기난’이란 ‘그런 친구와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기난」은 도쿠토미 소호가 1892년 8월에 『국민신문(國民新聞)』(785호)에 게재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가네코 모토오미(金子元臣)는 『중등국어독본:교수자료(中等國語讀本:教授資料)』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즉, 도쿠토미가 「지기난」을 쓴 목적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란 어떤 친구인가를 알림과 동시에 그런 절친한 친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었다.⁹⁾ 따라서 이와 같은 보편타당한 성격의 글이었기에 도쿠토미의 「지기난」은 『시문독본』에 실릴 수 있었다고 본다(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 설명).

그런데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와카(和歌)의 조선어역에 관심이 있는 필자에게 「지기난」은 가볍게 볼 수 없는 텍스트다. 도쿠토미가 쓴 글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에 와카의 조선어역이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기난」에 실려 있는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을 검토하여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그의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
- 4) 최남선 편, 임상석 역(2013) 『시문독본:최남선 한국학 총서11』 경인문화사. 337-345쪽
 5) 소설 『타락자』(1922년)에서 주인공이 『시문독본』에 나오는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데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야 잠 못 들어 하노라”라는 시조를 읊조리는 장면이 나온다.
 현진건(2003) 『타락자』 작가문화. 31쪽
 6) 이태준은 자전적 소설인 『사상의 월야』에서 주인공인 송빈을 통해 『시문독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참고로 『사상의 월야』는 원래 1941년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송빈이는 백노지에 쌓인 상품을 혼자 끌었다. 옥편이 한 권, 시문독본(時文讀本)이 한 권, 벼루집이 하나, 그리고 공책과 연필들이었다.”
 이태준(2011) 『사상의 월야』 글누림. 98쪽
 7) 최남선 편, 임상석 역 앞의 책. 341쪽
 8) 도쿠토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라고도 한다.
 9)金子元臣 編(1931) 『中等國語讀本：教授資料』卷6 明治書院. 167頁

2.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

1923년 7월(제7판)에 보이는 『시문독본』 출판 관련 기록에 따르면, 1916년 1월에는 제1판이, 1918년 4월에는 정정판이, 1918년 11월에는 제3판이, 1920년 7월에는 제4판이, 1921년 6월에는 제5판이, 1922년 5월에는 제6판이, 1923년 7월에는 제7판이 각각 출간되었다. 몇 년 사이에 『시문독본』이 적지 않게 팔려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시문독본』 초판은 1책 제1~2권으로, 개정판 이후는 1책 제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기난」은 제3권 제29장에 게재되었기에, 이것은 1918년의 개정판부터 『시문독본』에 실렸던 것이다.

「지기난」에 실려 있는 최남선의 와카 번역은 다음과 같다.

玉盃에심근梅花 행여밧게내지마라
꽃조코내조흔들 다시알이뉘잇스리
은음이감추어두고 님만뵈가하노라¹⁰⁾

그는 「지기난」에서 조선어로 옮긴 와카의 원문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원문은 어떤 와카였을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최남선이 조선어로 번역한 와카의 원문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연구자는 임상석인데, 그는 ‘玉粉에심근梅花’로 시작되는 최남선역(譯)의 와카 원문은 아래와 같다고 지적한다.

君ならで 誰にか見せむ 梅の花 色をも香をも 知る人ぞ知る¹¹⁾

또한

이 와카는 천황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와카집인 『古今和歌集』(10세기 초)에 紀友則의 작으로 수록되었다. 일본어 독음으로 읽으면 5/7/5/7/7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춘 와카이다. 여기서 君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知己를 의미한다(번역 및 해설은 임경화 선생의 의견임을 밝힌다).¹²⁾

10) 최남선 편(1923) 『시문독본 정정합판』(제7판)신문관. 173쪽

11) 최남선 편, 임상석 역 앞의 책. 220쪽

12) 임상석(2013) 「국학의 형성과 고전 질서의 해체: 『시문독본』의 번역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59집, 한국비교문학회. 85쪽

고 말한다. 그리고는 방금 인용한 ‘君ならで’로 시작하는 와카의 한국어역으로 임경화의 우리말 번역을 소개한다.

당신이 아니라면 그 누가에게 보이려 이 매화 빛깔이라도 향기라도 아는 사람만이 알겠지요¹³⁾

요컨대 국문학자인 임상석은 일문학자인 임경화의 도움을 받아 최남선이 번역한 와카가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에 실려 있는 기노 토모노리(紀友則)의 와카였음을 밝혀냈다. 최남선의 와카 번역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남선이 조선어로 번역한 와카의 원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도쿠토미의 글인 「지기난」이 언제 어디에 게재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¹⁴⁾ 임상석은 『시문독본:최남선 한국학 총서11』의 ‘일러두기’에서

번역의 대본이 있는 경우,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만물초」와 「이상」은 찾지 못했음을 밝힌다.¹⁵⁾

고 적고 있지만, 「지기난」의 출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조선총독부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다”¹⁶⁾고만 적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지기난」은 조선총독부의 교과서에 실리기 이전에 이미 내지(內地) 곧 일본에서 발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기난」은 1892년 8월에 발간된 『국민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君ならで’로 시작하는 와카는 임상석과 임경화의 지적대로 『고금화가집』에 실려 있는 기노 토모노리의 와카였음에 틀림없었다.¹⁷⁾

13) 앞의 논문. 85쪽

14) 「지기난」이 도쿠토미의 글이라는 것은 최남선이 「지기난」을 조선어로 번역한 후, 번역문의 맨 마지막에 ‘徳富蘇峰’라고 명시한 데서 알 수 있다.

15) 최남선 편, 임상석 역 앞의 책. 1쪽

16) 몇 년에 발간된 어떤 교과서에 게재됐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글에서 명확히 하자 한다.

17) 도쿠토미 소호 곧 도쿠토미 이이치로는 『국민신문』에 실었던 자신의 글을 모아 주로 『정사여록(靜思余録)』에 수록했다. 필자는 1934년에 민유사(民有社)에서 발간한 『국민총서 4권 정사여록(國民叢書四冊 靜思余録)』에서 「지기난」과 더불어 그가 인용한 와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문 「지기난」의 출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본고는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번역 측면에서 원문 「지기난」과 번역문 「지기난」을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徳富猪一郎(1934) 『國民叢書四冊 靜思余録』 民有社. 49-54頁

『고금화가집』은 천황의 명으로 편찬된 최초의 와카집이다. 이 시가집을 완역한 구정호는 『고금화가집』에 대해 그 가치는 문학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일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일본인의 전통적인 미의식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바로 『고금화가집』이라고 지적한다.¹⁸⁾

이런 평가를 받는 『고금화가집』의 편자는 기노 토모노리, 기노 쓰라유키(紀貫之), 오오시코우치노 미쓰네(凡河内躬恒), 미부노 다다미네(壬生忠岑)인데, 이 가운데 기노 토모노리가 「지기난」에 소개되어 있는 와카를 읊은 가인(歌人)이다. 그는 『오구라 백인일수(小倉百人一首)』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는데, 『오구라 백인일수』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와카가 실려 있다.

눈부신 햇살 따스한 햇살 품은 화창한 봄날 들뜬 마음 그대로 꽃¹⁹⁾은 지고
 마는가

ひさかたの光のどけき春の日にしづ心なく花の散らむ²⁰⁾

이 와카집(和歌集)은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0권과 후반부 10권의 양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전반부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을 읊은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축하의 노래(賀歌), 이별의 노래, 여행의 노래(羈旅歌), 그리고 언어유희적인 요소가 강한 사물의 이름을 소재로 한 노래(物名歌)가, 후반부에는 사랑의 노래(恋歌)를 중심으로 하여 죽은 자를 기리는 노래(哀傷歌),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노래인 잡가(雜歌), 여러 가체(歌體)의 노래를 수록한 잡체(雜體)²¹⁾, 신에게 바쳤던 노래(神遊びの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²²⁾ 이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지기난」의 와카는 전반부 사계절을 노래한 와카 가운데 봄을 읊은 노래인 춘가(春歌)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시문독본』에 수록된 「지기난」의 원문에는 “君ならで誰にか見せむ梅の花色をも香をも知る人ぞ知る”²³⁾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해당 와카의 제목인 “梅の花を折りて人におくりける”²⁴⁾ 곧 “매화를 꺾어 어떤 이에게 보냄”²⁵⁾이 제시되어 있다. 여하튼 이 와카에 대해 구정호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18) 구정호 역(2010)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상) 소명출판사. 7쪽

19) 여기서 꽃은 「桜の花」 곧 벚꽃을 의미한다.

20) 이 와카는 원래 『고금화가집』에서 ‘봄을 읊은 노래군(群)’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임찬수(2008) 『백인일수:일본 고전 시가의 정수』 문예원. 129쪽

21) 여기에는 장가(長歌)·서두가(旋頭歌)·비해가(誹諧歌)가 포함된다.

22) 구정호 역 앞의 책. 10-11쪽

23) 徳富猪一郎 前掲書. 50頁

24) 小沢正夫·松田成徳 校注(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43頁

25) 구정호 역 앞의 책. 65쪽

매화의 자태와 향기의 아름다움은 그 색과 향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귀한 것. 바로 그런 고상한 취향을 가진 분은 다름 아닌 당신이라고 표현하며, 매화를 색과 향기를 칭찬함과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상대방의 풍류를 높이 사고 있다.²⁶⁾

그런데 앞서 인용했듯이 최남선은 “君ならで”로 시작하는 기노 토모노리의 와카를

玉盆²⁷⁾에심근梅花 행여밧게내지마라
 꽃조코내조흔들 다시알이뉘잇스리
 은옥이감추어두고 님만뵈가하노라²⁸⁾

고 조선어로 옮겼다. 이 번역에 대해 임상석은 도쿠토미의 와카 원문과 그 원문에 대한 임경화의 번역을 인용하면서

도쿠토미의 원문에 있는 **와카(和歌)**를 **자의적으로 자작의 시조로 대체한 것이다. (중략) 이 두 시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문맥에 큰 변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현재의 번역 관행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²⁹⁾

고 말한다.

그의 지적대로 와카 원문과 시조 번역문 간에는 대체적인 의미면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동소이’의 ‘소이’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문에 나오는 ‘매화(梅の花)’가 번역문에서는 ‘玉盆에심근梅花’로 옮겨져 있다는 점이다.

영조 31년인 1755년에 김수장이 편찬한 시조집인 『해동가요(海東歌謠)』에는 조선 숙종~영조 때의 가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성기의 시조가 몇 수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래와 같은 유명한 작품이 있다.

玉盆에심근梅花 혼柯枝것거넌이
 곳도곱션이와 暗香이더욱쫓타
 두어라것거왔건이 발일썰이이실야³⁰⁾

26) 위의 책. 65쪽

27) ‘玉盆’을 임상석처럼 ‘옥 화분’ 곧 옥으로 만든 화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명사 앞에 ‘옥’을 두어 명사를 미칭(美稱)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본다.

임상석 앞의 논문. 85쪽

28) 최남선 편 앞의 책. 173쪽

29) 임상석 앞의 논문. 85쪽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가인인 김성기는 매화의 색과 향기를 제재(題材)로 하면서 시조를 읊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김성기가 매화를 ‘玉盆에심근梅花’로 표현하고 있고, 최남선은 이 표현을 「지기난」에서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시조 표현인 ‘玉盆에심근梅花’라는 표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시문독본』보다는 나중에 출간됐기는 하지만, 최남선이 1928년에 발간한 시조집인 『시조유취(時調類聚)』의 화목류(花木類)의 ‘매화’ 항목에 바로 김성기의 그 시조가 실려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¹⁾ 결국 최남선은 와카를 번역할 때 시조 형식으로 옮겼을 뿐만이 아니다. 시조에 나오는 표현³²⁾까지도 빌려 쓰고 있었다.³³⁾

이와 같이 와카 번역에 보이는 최남선 임의적인 변용은 사실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시문독본』의 ‘예언(例言)’ 곧 ‘일러두기’에서 이미 원문에 충실한 번역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例言

一, 이 책은時文을 배호는 이의階梯되게 하려 하여 옛것 새것을 모기도 하고 짓기도 하여 適當한 줄 생각하는 方式으로 編次함

一, 옛글과 남의 글은 이 책 目的에 맞도록 줄이고 고쳐 반드시 原文에 거리 끼지 아니함³⁴⁾

一, 文體는 아모썩록 變化잇기를 힘썼스나 아즉 널리 諸家를 採訪할 거리가 적음으로 單調에 빠진 嫌이 업지 아니함

一, 이 책의 文體는 過渡時期의 一方便으로 생각하는 바-니 母論完定하자는 뜻이 아니라 아즉 동안 우리 글에 對하야 알마름 暗示를 주면 이 책의 期望을 達함이라

一, 이 책의 用語는 通俗을 爲主 하얏스니 學課에 쓰게 되는 境遇에는 師授되는 이가 맞당히 字例句法에 合理的 訂正을 더할 必要가 잇슬 것³⁵⁾

30) 인용은 아래의 문헌에 의한다. 참고로 원문에는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일부 띄어쓰기를 했다.

김수장 편(1930) 『해동가요』 경성제국대학. 64쪽

31) 최남선 편(1928) 『시조유취』 한성도서주식회사. 9-10쪽

32) 덧붙여 최남선의 미발표 시조 가운데 ‘매화(梅花)’와 ‘분(盆)’이라는 시어가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그에게 ‘매화’와 ‘분’이라는 시어는 익숙한 것이었다.

“맑은내 초출한맛 멀리보아 좋을매화 / 구태어 분에올려 책상위에 놓으시면 / 방주여 험한등걸이 티안나다 하시리”

최학주(2011) 『나의 할아버지 육당 최남선』 나남. 53쪽

33)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4) 이 표현은 1916년 초판본의 ‘例言’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다음 참고문헌에는 부록으로 초판본의 ‘例言’이 실려 있고, 필자는 그것을 통해 초판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남선 편, 구자황·문혜윤 공편 앞의 책. 236쪽

35) 최남선 편 앞의 책. 2쪽

그런데 임상석은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에 대해 “일본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도리어 전근대적인 진서(眞書)의 질서로 회귀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을까?”³⁶⁾라고 물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짧지 않은 인용이지만 중요한 대목이기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민족적 의식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시라는 보편적 고전은 변경 불가한 것이 되며 일본의 와카나 한국의 시조 같은 자국적 전통은 변경 가능한 것이 되기에 (중략) 전근대적인 고전 질서가 그대로 적용된 형국이 되어 버린 셈이다. (중략) 인용된 와카를 일본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시문독본』의 체제상 어울리지 않는 노릇이며, 한글로 번역할 경우에도 시의 원래 운율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와카의 번역은 전근대적 고전질서보다는 최남선의 미의식이나 한국어 글쓰기를 목표로 한 『시문독본』의 편집의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최남선의 미의식, 『시문독본』의 편집의도 그리고 전근대적 고전질서의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³⁷⁾

위 인용문을 보면 임상석이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느새인가 당시 최남선이 일본에 가졌던 민족적 감정 곧 반일 민족주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 곧 와카를 시조 형식으로 옮긴 것³⁸⁾과 동시에 시조 표현을 차용한 것에는 그의 민족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3. 와카 번역 양상에 나타난 반일 민족주의

앞서 언급했듯이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에는 임상석의 지적대로 와카를 한글로 번역할 경우에 와카의 원래 운율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최남선의 미의식, 한국어 글쓰기를 목표로 한 『시문독본』의 편집의도 그리고 전근대적 고전질서의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당시 최남선이 가

36) 임상석 앞의 논문. 86쪽

37) 위의 논문. 85-86쪽

38) 최남선은 1926년에 창작시조집인 『백팔번뇌』를 출간할 정도로 시조에 익숙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도 그가 와카를 시조로 번역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졌던 반일 감정 곧 민족주의 의식이 적지 않게 관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지기난」은 토쿠토미가 1892년 8월에 『국민신문』(785호)에 발표한 것이었는데, 이후 이것은 일본에서 발간된 ‘독본(讀本)’에 널리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연구회(教育硏究會)가 1909년 5월에 동운당(東雲堂)에서 편찬한 『신정중등국어독본자해(新訂中等國語讀本字解)』(제7권), 국어연구회(國語硏究會)가 1912년 6월에 제미당(濟美堂)에서 출간한 『수정중등국어독본참고서(修訂中等國語讀本參考書)』(제6권)등과 같은 ‘독본’에서 「지기난」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기난」은 내지의 텍스트였고, 중국 고전³⁹⁾, 서양 고전⁴⁰⁾, 일본 고전 곧 『고급화가집』에 나오는 기노 토모노리의 와카를 수록한 텍스트였다.

그런데 최남선은 번역문 「지기난」에서 와카를 시조 형식으로 번역하여 와카라는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를 지움으로써 중국 고전, 서양 고전, 일본 고전으로 이루어진 「지기난」을 일본 고전이 빠진 텍스트로 치환해버렸다.⁴¹⁾ 또한 그는 「지기난」에 실려 있는 매화의 색과 향을 제재로 한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면서 조선시대 가인인 김성기의 시조에 보이는 표현인 ‘玉盆에심근梅花’를 차용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도쿠토미는 원문 「지기난」에서 짧은 기차 여행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비유로서 ‘동경에서 요코하마까지의 기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남선은 번역문 「지기난」에서 의도적으로 ‘동경에서 요코하마까지의’에 해당하는 원문을 삭제하고 번역한다. 이 부분이 특히 번역하기 어려운 곳도 아닌데 말이다. 이것은 최남선이 「지기난」에서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가 나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제거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번역문과 원문은 아래와 같다.

39) 예를 들어 「지기난」에는 “시가청경재신춘(詩家靑景在新春)”으로 시작하는 중국 시인 양거원(楊巨源)의 한시가 번역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1973) 『육당 최남선 전집 8:삼국유사·대동지명사전·시문독본』 현암사. 552쪽

40) 「지기난」에는 키에르케고르가 언급한 것이 다음과 같이 직접 인용되어 있다. “余에게 대하여는 스키피오, 오히려 생존할 뿐 아니라 금후에 향구히 생존하리라”하였다.

위의 책. 552쪽

41) 일본의 정형시인 와카를 우리민족 고유의 시가인 시조로 옮긴 것에 역시 최남선의 민족의식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시문독본』에 나온다. 『시문독본』 제4권 30장에 수록되어 있는 「古今時調選」에서 최남선은 다음 인용문과 같이 시조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곧 국풍(國風)이라고 말한다. “時調는 우리文學 중 가장 보통의 형식이요 또 가장 由來의 久遠한 것이니, (중략) 數世紀 전까지도 文人 學士는 진실로 무론이요, 名公 碩輔로 山林 隱士까지 이 고유한 國風에 다 상당한 造詣가 있었으며, 특별히 選集과 採存의 擧 없었으되, 금일까지 遺傳되는 것도 자못 不尠하니라.”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590쪽

竹馬의 友, 同窓의 友, 同鄉의 友,⁴²⁾ 同位置의 友, 同臭味의 友, 朋友의 종류 또한 多하다. 진실로 천하의 人에 友치 못할 자 없나니, 적이 留心하여 談話 할진대 잠시 동석하는 기차 중에서라도 幾多의 友人을 得할 수 있도다.⁴³⁾

竹馬の友。同窓の友。同郷の友。同業の友。同位置の友。同臭味の友。友も亦類多し。然り、天下何人か友たらざる者あらん、少しく心を入れて談話すれば、東京より横浜に達する汽車中にてすら、既に幾多の友人を獲るを得べし。⁴⁴⁾

결국 최남선이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면서 시조 형식과 시조 표현을 차용한 것에는 일본에 대한 그의 반일 민족주의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번역본 「지기난」에 보이는 번역자 최남선의 개입, 곧 삭제(‘동경에서 요코하마까지의’에 해당하는 원문 삭제)는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해 최남선의 가졌던 민족 감정은 「지기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민족주의도 적지 않게 드러’⁴⁵⁾난다고 평가 받는 『시문독본』의 다른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문독본』에는 「사와 영생」이 실려 있다. 이것은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가 1899년 8월에 「死と永生(しとえいせい)」라는 제목으로 『중학세계(中学世界)』에 발표한 것을 최남선이 「사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문은 이른 시기부터 내지에서 발간된 독본에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연구회가 1909년에 편찬한 『신정중등국어독본자해』(제9권, 동운당), 국어연구회가 1912년에 펴낸 『중등국어독본참고서(中等国語読本参考書)』(제8권, 濟美堂書店) 등에 이미 게재되었다.

다카야마는 「사와 영생」에서 인생 문제 곧 진정한 영생은 이름에 있는 것 아니라 일(事)에 있다, 죽음을 이해해야 진정한 삶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런데 최남선은 원문에 나오는 ‘남공(楠公)’⁴⁷⁾ 곧 남북조(南北朝)시대의 무사인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를 중국 남송의 무장인 ‘악비(岳飛)’로 번역한다. 치환이라는 번역 전략으로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를 지운 것이다. 번역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永生은 이름으로써 生함이 아니라 일로써 生함이니라. 儒敎의 있는 바에는 孔子 거기 있으며, 寺院이 있는 바에 釋迦 간대죽족 있으며, 耶穌는 十

42) 이 뒤에 ‘同業の友’의 번역인 ‘同業의 友’가 빠져 있다. 단순 오류로 보인다.

43)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552쪽

44) 徳富猪一郎 前掲書. 49-50頁

45) 최남선 편, 임상석 역 앞의 책. 341쪽

46) 金子元臣 編 前掲書. 124頁

47) 일본어로는 ‘なんこう’라고 읽는다.

字架에 못박혔지마는 이제까지 基督教徒의 생명이로다. 岳飛의 史蹟에 감격하는 이의 가슴에는 岳飛 그이의 생명이 있으며, (후략)⁴⁸⁾

まことの永生は名によりて生くるに非ずして、事によりて生くる也。儒教の存するところ、今尚ほ孔子あらざるは無く、仏寺の建つところ到處に積迦あり、耶穌は十字架にかかれりと雖も、今尚ほ基督教徒の命也。 楠公の史蹟に感激する者胸には楠公其人の生命あり、(後略)⁴⁹⁾

다음으로 『시문독본』에는 「세계의 사성」 상·하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다카야마 초규가 「世界の四聖(せかいのしせい)」라는 제목으로 1901년 12월에 금항당서적(金港堂書籍)에서 편찬한 『중학국어독본(中学国語讀本)』(권7)에 발표했던 것이다.⁵⁰⁾ 그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세계의 사성(四聖)이라 불리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행적과 교리를 알려져서 정신 수양으로 삼음과 동시에 희생 정신을 기르기 위함에 있었다.⁵¹⁾ 이 텍스트도 발표된 후, 역시 내지에서 여러 ‘독본’에 실렸다. 예를 들어 1909년에는 교육연구회의 『신정중등국어독본자해』(제10권, 동운당)에, 1912년에는 오치아이 나오후미(落合直文)의 『중등국어독본(中等国語讀本)』(제9권, 明治書院)과 국어연구회의 『수정중등국어독본자해』(제10권, 동운당) 등에 각각 수록되었다.

그런데 최남선이 조선어로 옮긴 「세계의 사성」에는 ‘너무 굳거나 뻣뻣하면 꺾여지기가 쉽다’는 의미의 ‘태강칙절(太剛則折)’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원문인 「世界の四聖」에 나오는 ‘喬木風に折らる’라는 일본 속담을 변형한 것이다. 그 의미는 “큰 나무가 바람의 피해를 받기 쉽듯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받아 비판이나 공격이 집중된다”⁵²⁾이다. 여기서도 일본적인 색채를 지우고 싶었던 최남선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번역문과 원문은 아래와 같다.

소크라테스 慨然히 時弊의 救濟로써 自任하여, 盛히 道를 講하고 理를 論하여 諄諄하여 倦치 아니하며, 詭辯學派를 通하면 그 特絶한 논법으로써 辯難 攻擊하여 一步 假借하지 아니하고, 侃諤한 正義가 그 稀代の 웅변과 相半하여

48)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580쪽

49) 高山林次郎著·姉崎正治 編(1913) 『梶牛全集』 第4卷 博文館. 571-572頁

50) 임상석은 “그의 글은 당대의 미문으로 평가받아 교과서에도 자주 수록되었다. 이 글은 일본의 『고등국어독본』에 수록되어 식민지 조선에서도 교수되었다. 여기서 대조한 저본은 『고등국어독본』 수록본이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사성」은 중등교육용 독본에 실리는 수준의 글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본문 참조. 최남선 편, 임상석 역 앞의 책. 279쪽

51) 金子元臣 編 前掲書. 231頁

52) 池田利夫(1987) 『ことわざ辞典』 ナツメ. 164頁

一世를 風靡하더니, 太剛則折이라, (후략)⁵³⁾

ソクラテースは慨然として、時弊の救済を以て自ら任じ、盛に道を講じ理を談じ、諄々として 倦まず、詭弁学者の輩に通へば、則ち其の独得の論法を以て弁難攻撃して、一步も仮借せず、侃諤の正義、其の稀代の雄弁と相半ひて、一世を風靡せり。然るに、喬木は風に折らるゝの喩に漏れず、(後略)⁵⁴⁾

마지막으로 『시문독본』에는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理想(りそう)」를 조선어로 번역한 「이상」이 실려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최남선이 번역한 「이상」의 번역 대본 곧 저본이 밝혀지지 않았다.⁵⁵⁾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최남선이 번역 대본으로 삼은 것은 오치아이 나오부미(落合直文)가 편찬한 『수정중등국어독본(修訂中等国語読本)』(제9권)이었다.⁵⁶⁾ 이것의 제15과에 「理想」가 수록되어 있다.⁵⁷⁾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검토해본 것과 같이 원문에 있는 일본적인 색채를 번역문에서 삭제한다는 것이 「이상」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원문에는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언급 즉 “내가 젊었을 때 한번 읽고 버려버린 문장은 모두 내 유언으로 할 만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번역문에는 그 부분을 포함한 전후의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번역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古人이 曰하되, 「朝聞道면 夕死라도 可라」 하니, 朝의 理想을 夕에 실현하면 死하여도 또한 悔가 無할지라. 대개 명월이 有하다 謂하는 天國과 명일이 無하다 謂하는 天國 兩者中, (후략)⁵⁸⁾

古人いはく、「あしたに道を聞けば、ゆふべに死すとも可なり」と、朝に理想するところを、力の及ばんかぎり、夕までに実現し得ば、たちどころに死すとも、悔なかるべきなり、昔、俳人芭蕉は、「わが、年ごろ詠み捨てたる句は、皆以て、わが辞世の句となすに足る」といひきとか。蓋し、この覚悟ありければならん。明日ありと思ふ天国と、明日なしと思ふ天国と、そのいづれに(後略)⁵⁹⁾

53)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578쪽

54) 高山樗牛(1906) 『樗牛全集』(第3卷) 博文館. 461頁

55) 임상석은 「이상」의 번역 대본에 대해 “이 글의 저본은 미확인이다”고 말했다.

최남선 편, 임상석 역 앞의 책. 198쪽

56) 「이상」의 번역 대본을 밝힌 것만으로도 본고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본다.

57) 落合直文編·萩野由之·森林太郎補修(1911) 『修訂中等国語読本』 卷9 明治書院. 78-84頁

58)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550쪽

59) 落合直文編 前掲書. 83-84頁

결국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은 그의 반일 민족주의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지기난」, 「사와 영생」과 「세계의 사성」, 「이상」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었던 원문에 대한 번역자 최남선의 적극적인 개입 곧 삭제와 치환이었다. 이것은 원문에서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를 지우고 싶었던 최남선의 욕망 곧 민족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 곧 와카를 시조 형식으로 옮기는 것과 동시에 시조의 표현을 차용한 것에서 일본에 대한 그의 민족주의를 읽어낼 때, 『시문독본』에서 그가 일본인 작가를 소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곧 그가 당시 일본에 대해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인 작가가 쓴 글을 왜 굳이 『시문독본』에 수록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가 인용한 도쿠토미나 다카야마의 문장이 그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의 문장인 「지기난」과 「사와 영생」 및 「세계의 사성」은 일본적인 특수한 테마를 다룬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또한 이들의 문장은 명문으로 유명했기에 글쓰기와 읽기 독본인 『시문독본』의 성격에도 부합했을 것이다. 게다가 최남선은 이들 텍스트가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쉽도록 조치해두었다. 주도면밀하게 각각의 텍스트에 삭제와 치환을 가해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를 지워버렸다.

결국 번역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최남선은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출발언어 중심주의가 아니라 도착언어 중심주의를, 이국화가 아니라 자국화를 꾀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남선의 번역 전략을 고려해 보면 그의 와카 번역 양상에는 최남선의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4. 맺음말

최남선의 『시문독본』 제3권 제29장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었다. 언론인이면서 평론가였던 도쿠토미의 「지기난」이 조선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이루어진 와카의 조선어역에 관심이 있는 필자에게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도쿠토미의 「지기난」에 실려 있는 『고금화가집』의 와카를 최남선이 시조 형식으로, 또한 시조 표현을 차용해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시문독본』에 관해 적극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는 임상석은 이와 같은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에 대해 최남선의 미의식, 『시문독본』의 편집의도 그리고 전근대적 고전질서의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⁶⁰⁾ 하지만 이런 임상석의 지적과 함께 역시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에는 당시 그가 품고 있었던 반일 민족주의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미 자세히 언급했듯이 최남선은 번역문 「지기난」에서는 원문 「知己難」에 나오는 ‘동경에서 요코하마까지의 기차’란 표현을, 번역문 「이상」에서는 원문 「理想」에 보이는 마쓰오 바쇼가 언급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번역했다. 이와 같이 『시문독본』에서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를 지워버림으로써 내지의 텍스트를 국적 불명의 텍스트로 만드는 최남선의 번역 전략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시문독본』에서 다카야마의 「死と永生」라는 글을 「사와 영생」이라고 번역·소개했다. 그런데 최남선은 원문에 나오는 ‘남공’ 곧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중국 남송의 무장인 ‘악비’로 번역했다. 또한 그는 다카야마의 다른 글인 「世界の四聖」를 「세계의 사성」(상·하)으로 번역했는데, 「세계의 사성」(상)에는 ‘너무 굳거나 뻣뻣하면 꺾어지기가 쉽다’는 의미의 ‘태강칙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원문인 「世界の四聖」에 나오는 “큰 나무가 바람의 피해를 받기 쉽듯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받아 비판이나 공격이 집중된다.”⁶¹⁾라는 의미인 「喬木風に折らる」라는 일본 속담을 변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치환에도 일본적인 풍경과 색채 곧 ‘왜색’을 지우고 싶었던 최남선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기난」에 보이는 최남선의 와카 번역 양상은 번역의 측면에서 보면 도착언어중심주의였고, 자국화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임상석의 지적뿐만이 아니라 최남선의 반일 민족주의⁶²⁾도 크게 작용했었다고 생각된다.⁶³⁾

60) 임상석 앞의 논문. 85-86쪽

61) 池田利夫 前掲書. 164頁

62) 최남선은 와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시조 표현을 활용하고 시조 형식을 차용한 것에 그의 반일 민족주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본고에서 열거한 근거와 주63을 참조할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인가?

63) 최남선은 해방 후 친일파로 반민특위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런 친일의 얼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신문화 운동도 벌였고, 「기미독립선언서」도 작성했다. 개인사를 검토해보면 ‘반일’에서 ‘친일’로 돌아서는 시기는 그가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는 1920년대 후반이다. 따라서 『시문독본』을 편찬한 시기는 아직 그가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때였다. 최남선의 일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구정호 역(2010)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상) 소명출판사. 7쪽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편(1973) 『육당 최남선 전집 8:삼국유사·대동지명사
전·시문독본』 현암사. 552쪽
김수장 편(1930) 『해동가요』 경성제국대학. 64쪽
류시현(2011) 『최남선평전』 한겨레출판. 21-243쪽
이태준(2011) 『사상의 월야』 글누림. 98쪽
임찬수(2008) 『백인일수:일본 고전 시가의 정수』 문예원. 129쪽
최남선 편(1928) 『시조유취』 한성도서주식회사. 9-10쪽.
_____, 구자황·문혜윤 공편(2009) 『근대문학독본1:시문독본』 경진문화. 245쪽
_____, 임상석 역(2013) 『시문독본:최남선 한국학 총서11』 경인문화사.
337-345쪽
최학주(2011) 『나의 할아버지 육당 최남선』 나남. 53쪽
현진건(2003) 『타락자』 작가문화. 31쪽
최남선 편(1923) 『시문독본 정정합편』 (제7판)신문관. 173쪽

<국문 논문>

- 임상석(2013) 「국학의 형성과 고전 질서의 해체: 『시문독본』의 번역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59집, 한국비교문학회. 85쪽

<일문 단행본>

- 小沢正夫·松田成穂 校注(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43頁
落合直文編·萩野由之·森林太郎補修(1911) 『修訂中等国語読本』卷9 明治書院. 78-84頁
金子元臣 編(1931) 『中等国語読本:教授資料』卷6 明治書院. 167頁
高山樗牛(1906) 『樗牛全集』(第3卷)博文館. 461頁
高山林次郎著·姉崎正治編(1913) 『樗牛全集』第4卷 博文館. 571-572頁
徳富猪一郎(1934) 『国民叢書四冊 静思余録』民有社. 49-54頁

要 旨

崔南善が編纂した『時文讀本』(第3巻第29章、1918年4月)にはとても興味深い翻訳文が載せられている。徳富蘇峰が1892年8月に『国民新聞』に発表した「知己難」が朝鮮語で訳されており、さらにそこには「君ならで誰にか見せむ梅の花色をも香をも知る人ぞ知る」という紀友則の和歌が時調(韓国の定形詩の一つ)で翻訳されていたからだ。最近、林相錫は『時文讀本』に関する論文を立て続けて発表している。彼はそれらの論文の中で崔が和歌を時調で訳した理由として、崔南善の美意識や『時文讀本』の編集意図、そして前近代的な古典の秩序といったことをあげている。だが、和歌を時調で訳したこと、すなわち和歌の翻訳様相には林の指摘とともに、以下の三つの理由により当時崔南善が日本について抱いた反日感情が働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まず、崔は「知己難」を翻訳する際、「東京より横浜に達する汽車中にてすら」という表現から「東京より横浜に達する」を削除して訳した。次に、『時文讀本』には1899年8月に高山樗牛が『中学世界』に載せた「死と永生」という文章も翻訳されている。崔は「死と永生」に出てくる「楠公」すなわち楠木正成を南宋における武将「岳飛」と訳した。最後に、『時文讀本』には1891年12月に高山が『中学国語讀本』に発表した「世界の四聖」も訳されている。そして、「世界の四聖」には「喬木風に折らる」という諺が出てくるが、彼をそれを「太剛則折」と翻訳した。つまり、崔南善が和歌を時調で訳したことには、林相錫の指摘とともに、当時崔南善が日本について抱いた反日民族主義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崔南善、時文讀本、知己難、時調、朝鮮語訳、反日民族主義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게재확정일 : 2015. 4. 4